

☰ 홈 > 뉴스 > 비즈니스IT

## 슈나이더일렉트릭SW, '2018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 참가

제조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통합 관리 솔루션 '시스템 플랫폼' 소개

2018년 03월 29일 (금) 16:57:19

정종길 기자 ✉ gil0717@itdaily.kr



▲ 슈나이더일렉트릭SW의 '2018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 부스 전경

[아이티데일리] 공정 최적화 및 자동화 전문 소프트웨어(SW) 기업 슈나이더일렉트릭SW코리아(대표 김경록)는 '2018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Smart Factory+Automation World)'에 참가했다고 29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주최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스마트 공장 및 자동 제어 전문 행사로, 3월 28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슈나이더일렉트릭SW는 제조업의 미래를 구상할 수 있는 스마트 공장 구축을 위한 다양한 솔루션을 선보였다. 산업용 SW 통합 관리 시스템인 '시스템 플랫폼(System Platform)'과 함께 클라우드, 빅데이터 분석, 감시 및 모바일 모니터링의 기술을 소개했다. 또한 슈나이더일렉트릭이 함께 참가해 5대 공정 작업 중 하나인 조립부문도 전시됐다.

슈나이더일렉트릭SW의 '시스템 플랫폼(System Platform Powered by Wonderware)'은 감시, SCADA, HMI, IIoT 애플리케이션을 위해 만들어진 확장 가능한 반응형 플랫폼이다. 협업과 표준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운영 개선과 실시간 의사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시설 전반의 인력, 프로세

스, 자산 통합을 가능하게 한다. 이번 행사를 통해 제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스템 플랫폼을 데모 부스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다.

특히 이번 행사의 일환으로 28일 민관합동 스마트공장추진단과 ‘멤버십 참여에 대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도 진행됐다. 박진우 스마트공장추진단장, 송병훈 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슈나이더 일렉트릭을 포함한 총 13개 기업이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또한 박태상 슈나이더일렉트릭SW 아태지역 부사장이 대표로 참석, 스마트 제조 혁신의 비전을 공유했다.

박태상 부사장은 “이번 ‘2018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은 4차 산업혁명 대비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위해 필요한 슈나이더일렉트릭SW의 리더십을 소개하는 자리다. 안전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산업군에 걸쳐 적용될 수 있는 슈나이더일렉트릭SW의 제품군을 체험할 수 있는 자리로, 스마트 공장 구축을 위한 비전을 만나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슈나이더일렉트릭SW는 슈나이더일렉트릭의 산업용 소프트웨어와 영국 산업용 소프트웨어 상장기업 아비바(AVEVA)를 인수해 ‘아비바’로 사명을 변경, 새롭게 도약한다고 밝혔다. 회사는 향후 엔지니어링 및 산업용 소프트웨어를 이끄는 글로벌 전문 기업으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 ITDaily(<http://www.itdaily.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